

중고령자 빈둥우리가계의 부채보유여부와 가계 재무상태: 소득과 자산 수준을 고려하여*

The Middle-Old Aged Empty Nest Households' Debts Holding and Financial Status: Considering the Level of Income and Assets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박사 송현주
교수 윤정혜

Departmen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Inha University

Doctor : Hyun-Ju Song

Professor : Jung Hai Yoon

◀ 목 차 ▶

I. 서론	IV. 분석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연구방법	References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for the analysis the middle-old aged empty nest households' debt holdings and their financial status(emergency fund index, liquidity index, debt burden index) considering the level of income and asset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study, we made use of the KReIS third beta-version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in all income · asset groups there were more non-debts holding houses compared to debt holding houses. Moreover in debts holding houses, compared to other groups high income · high assets groups were more. Second, the households that possessed more assets, had more debts. Third, the financial status of the households holding debts were more vulnerable compared to households that had no debts. Moreover, all income · asset groups' emergency fund index were low. Households having no debts possessed low real assets and so the liquidity index was higher in holding debts households. In holding debts households, debt burden index was high. And especially these houses suffered from high debt burden when their income and asset were low.

주제어(Key Words) : 중고령자 빈둥우리 가계(middle-old aged empty nest households), 재무상태(financial status),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Corresponding Author : Hyun-Ju Song, Departmen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Inha University, 253 Yonghyun-dong, Nam-gu, Incheon, 402-751, Korea Tel: +82-3218-8628 E-mail: guswn8026@naver.com

*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함.

I. 서론

2011년 1/4분기 현재 가계대출은 801조 3,950억원으로 (Economics Statistics System [ECOS], 2011), 가계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은 연평균 13.0% 증가하였고, 이는 경상 GDP 증가율(7.3%)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은퇴자 가계나 가족생활주기 후기에 이른 중고령자 부채가계의 경우에는 노후생활자금으로 쓰여야 할 가계자원이 부채상환에 동원됨으로써, 부채상환으로 인한 소비지출의 위축과 가계의 경제적 복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대출금리 상승에 의한 이자부담 증가로 채무불이행자 또는 가계파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Statistics Korea(2010)의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부채를 보유한 가계이며, 50대 가구주 가계의 경우 66.5%, 60대 이상 가구주 가계의 경우 40.1%가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중고령자 가계의 상당수는 생애 후반기도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을 갖고 노후시기를 보내고 있다.

가계 부채 관련 선행연구들(Baek & Hong, 2004; Bridges & Disney, 2004; Brown & Talyor, 2008; Canner & Lockett, 1991; Chae & Sung, 2000; Choi & Min, 2008; DeVaney, 1994; Hira, 1990; Kim, 2005; Kim, 2010; Kim & Choe, 2007; Kim & Lee, 2009; Kim & Kim, 2010; Lee, 2005; Marlowe & Godwin, 1988; May, Tudela, & Young, 2004; Sullivan & Warden, 1996; Sung & Yang, 2001; Yilmazer & DeVany, 2005; Yoo, 2009)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보유율은 낮아지지만,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부채부담수준은 오히려 높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한다면, 중고령 시기 이전의 가구에 비해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중고령자가계의 부채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근과 같은 은퇴연령이 급격히 낮아지는 고용현실 속에서 중고령자가계 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구원이 없다면, 늘어나는 이자부담과 부족한 가계소득으로 인해 부채상환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특히 최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자녀를 결혼으로 출가시키고 가구에 부부만 남아있는 빈둥우리 시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회현실을 고려해보자면, 빈둥우리 중고령자 부부가계 중 부채부담을 떠안고 있는 가계가 상당수에 이를 것이다. 이들 가계의 경우 생애 후반기에 있기 때문에 낮은 임금수준의 일자리에 있거나 고용시장에 재진입하기 어려운 가계가 다수에 이를 것이다. 자신들의 노후소득이나 자산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중고령자 부채가계라면 현재의 부채부담의 수준이

매우 높을 것이며, 이는 가계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가계부채에 취약한 집단은 고연령, 저소득 가계로 알려져 있는데, 중고령자 빈둥우리가계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높고, 가계소득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부부를 제외한 가계소득에 도움이 될 가구원이 없는 가계이므로 가계 부채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가계의 부채로 인한 부담은 가계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부채상환부담이 결혼으로 출가한 자녀에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 가계를 대상으로 가계재무상태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행된 일련의 가계부채 관련 연구들에서는 분석대상을 가계생애주기 전반의 가계로 설정하여 가계의 소득 수준이 낮아지는 생애주기 후반의 중고령자가계의 특성이 부각되지 못하였다. 또한 가계소득과 자산이 부채의 영향요인이라는 점은 밝혀졌으나, 소득과 자산 수준별로 부채 보유여부에 따른 가계 재무상태의 차이를 밝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계자원 수준에 따라 부채보유가 가계재무적 건전성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설명되지 않았다. 예컨대 최근 양극화현상을 고려했을 때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은 취약집단의 부채보유가계와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은 부채보유가계는 재무건전성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소득과 자산 수준을 고려하여 부채 보유여부에 따른 가계재무상태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가계자원 수준에 따라 재무상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으며, 부채보유가계의 가계자원 수준과 가계의 재무상태가 연결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이하 KReIS])(National Pension Service, 2009) 3차년도 베타버전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자 빈둥우리가계의 가계자원, 즉 소득과 자산 수준과 부채를 관련지어 이들 가계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계의 가계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에서 가계부채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가계의 소득과 자산 수준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가진 가계에서 부채를 보유하였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부채규모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소득과 자산 집단별 부채보유가계와 부채비보유가계의 재무상태를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객관적인 지표로 비교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결론에서 부채보유가계의 재무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가계부채 관련 선행연구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부채부담은 높은 편으로, Park과 Rhee(2002)의 연구에서는 부채보유가계의 부채부담이 일반 재무상당가들이 위험수위로 제시하고 있는 20% 한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hoe(2001)는 부채부담이 일정 수준(25%) 이상이 될 경우 가치분소득으로 인한 부채상환과 소비 지출을 충당할 수 없어 적자가계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가계부채 관련 선행연구들(Andolfatto & Gervais, 2008; Byun & Yoo, 2011; Choe, 1996, 2001; Jung & Han, 2004; Kim, 2004, 2005; Kim, 2010; Lee, 2005; Lee, 2006; Lee & Sung, 2007; Park & Rhee, 2002; Rhee & Huh, 2005; Shim, 1993; Sung, 2006; Sung, 2010; Sung & Yang, 1995; Yoo, 2009)에서는 부채를 보유한 가계가 부채 비보유 가계에 비해 소득과 자산, 순자산 등이 모두 높다는 결과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가계 부채가 소득내지 자산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 부채를 지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자산을 토대로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구체적으로 부채보유가계는 보유한 자산 수준이 높으며, 실물자산 의존도가 높은 반면 금융자산 수준이 매우 낮다. 부채규모가 큰 가계는 금융자산 규모가 낮아 유동성 측면에서 재무건전성 또한 취약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가치분소득 대비 부채, 총자산 대비 부채, 금융자산 대비 부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 수준이 낮을 경우 부채부담으로 인한 가계경제구조가 취약하다. Kim과 Kim(2010)의 연구에서는 소득계층이 최하위인 경우 가치분소득의 3배 이상, 금융자산의 10배 이상의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계층 부채보유가계는 재무건전성이 취약하고 과부채 상환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yun과 Yoo(2011)는 가계부채의 소득 및 자산의 관련성을 토대로 소득이 하락하는 것보다 부동산가치가 하락할 때 취약가구의 부채비중이 더 크게 증가한다고 밝혀, 부채부담에 소득보다 자산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한다면 취약계층인 중고령자 빈둥우리가계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무상태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중고령자 빈둥우리가계에는 고연령, 저소득으로 인한 빈곤가계가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여, 부채보유가계의 높은 부채부담과 재무상태 악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노후자금을 충분히 마련한 경우 가계의 부채부담이 낮을 것이므로 이들 가계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부채부담이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가계의 소득과 자산수준을 고려하여 부채보유여부

별 가계재무상태를 실증분석함으로써 파악가능할 것이다.

2. 가계재무상태의 측정방법

가계의 재무상태를 측정하는 것은 가계의 재무적 안정을 위해 경제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유량(flow)으로서의 가계 소득과 지출의 상태 파악과 저장(stock)으로서의 자산과 부채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러한 방법은 평가가 수월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재무상태 평가에 많이 이용된다.

가계소득, 소비지출, 자산, 부채 등을 통한 가계재무상태의 평가는 간단하게 가계경제의 기본적인 측면을 파악하게 해주나, Choe, Lee, Yang과 Sung(2003)는 이러한 단순한 지표로는 가계재무 비상상태나 부채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을 포함하는 가계의 안정성이나 가계자산의 균형성 등과 같은 가계경제의 복합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근에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 중 두 가지 이상의 변수를 조합한 가계재무비율을 통해 가계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도 하는데, 이는 각 가계의 재무상태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DeVaney, 1994; Garman & Fogue, 1994).

가계재무상태 평가에서 가장 자주 쓰이고 있는 재무비율로는 Choe 외(2003)가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평가기준을 개발한 재무비율지표로, 이 지표에는 가계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된다. 안정성지표에는 가계수지지표(월평균 생활비/월평균 가계소득), 비상자금지표(금융자산/월평균 생활비, 금융자산/월평균 가계소득), 위험대비지표(월평균 보험료/월평균 가계소득), 부채부담지표(월평균 부채상환액/월평균 가계소득, 총부채/금융자산, 총부채/총자산)가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소득과 자산 집단별 부채보유여부에 따른 가계의 재무상태를 비교하는 데 재무비율지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고령자 빈둥우리가계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집단별 부채보유여부에 따라 가계재무상태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중고령자 빈둥우리가계특성에 따라 부채보유여부와 규모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중고령자 빈둥우리가계의 소득과 자산수준과 부채보유여부에 따라 가계재무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는 국민연금공단의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National Pension Service, 2009) 3차년도 베타버전 자료를 이용하였다. KReIS는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2005년 기준 만 50세 이상 가구원을 가진 전국 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인 8,600여명을 대상으로 가구의 경제상황, 중고령자의 고용현황 및 퇴직, 건강, 가족관계, 노후보장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2005년부터 격년으로 조사하고 있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KReIS는 개인조사대상자 본인 명의의 부채에 관한 개인단위의 응답자료와 개인조사대상자들을 포함한 가구원들의 부채까지 합산된 가계단위 부채규모를 측정하고 있다. 개인단위 부채 자료는 담보대출 등 금융기관이나 회사에서 빌린 돈의 잔액, 사채나 친척으로부터 빌린 돈,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여야 할 갯돈, 연대보증 등으로 진 빚의 잔액 및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 신용카드 할부금액, 현금서비스 등을 부채로 정의하고, 각 항목별 부채보

유여부와 액수를 비교적 자세하게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목별로 측정된 개인조사대상자의 부채를 합산하여 가계단위로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중고령자 빈둥우리가계이므로, KReIS 3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원표본가계 중 부부가계와 1인가계를 분석에 포함하여, 총 1,234가계가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소득과 자산의 중앙값을 이용하여 네 집단(저소득·저자산, 저소득·고자산, 고소득·저자산, 고소득·고자산)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가계특성은 가구주의 특성, 가구특성으로 구성하였다. 가구주의 특성에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사상지위, 자녀수가 포함되며, 가구특성에는 거주지역과 가족유형을 포함시켰다. 참고로 가구주 연령의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Statistics Korea, 2010), 이에 근거한 노인해당여부와 조사대상의 분포를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자녀수는 자녀수의 분포가 0~10명까지 나타난 가운데, 분석사례의 확보를 위하여 0~1명, 2~3명, 4명 이상으로 범주화하였으며, 본 연구에 쓰인 변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각 소득·자산 집단의 가계특성별 부채보유상태는 교차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각 소득·자산집단의 가계특성별 부채규모는 집단간 크기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일반선형모형(General Linear Model: 이하 GLM)

Table 1. Measurement of variables

Variables	Values and definition
<i>Householder's characteristics</i>	
Gender	0.Male, 1.Female
Age	0.Lower than 65, 1.65 through 74, 2.75 or higher
Education level	0.None, 1.Graduation of Elementary School, 2.Graduation of Middle school or higher
Employment Status	0.Unemployed, 1.Paid worker, 2.Self-employed(employer and self-employed worker)
Number of children	0.None or 1, 1.2 or 3, 2.4 and more
<i>Household's characteristics</i>	
Region	0.Province, 1.Seoul and metropolitan city
Family type	0.Single, 1.Couple
<i>Groups of Income and Assets</i>	
Low income · Low Assets	Income is less than 8,248,000won, assets are less than 65,325,000won
Low income · High Assets	Income is less than 8,248,000won, assets are 65,325,000won and more
High income · Low Assets	Income is 8,248,000won and more, assets are less than 65,325,000won
High income · High Assets	Income is 8,248,000won and more, assets are 65,325,000won and more
<i>Debts</i>	
Holding debts	0.Holding debts, 1.Not holding debts
Debts Size	Total Assets(10,000won)
<i>Financial Ratio</i>	
Emergency fund index	Financial assets/Monthly expenditure for living
Liquidity index	Financial assets/Total assets
Debt burden index	Debts/Disposable income Debts/Total assets Debts/Financial assets

Table 2.
Characteristics of sample households by income and assets (N = 1,234)

Variables	Low Income · Low Asset		Low income · High Asset		High Income · Low Asset		High Income · High Asset	
	%	n	%	n	%	n	%	n
Total	36.4	449	13.6	168	13.6	168	36.4	449
<i>Householder's characteristics</i>								
Gender								
Male	32.1	144	60.7	102	67.9	114	85.5	384
Female	67.9	305	39.3	66	32.1	54	14.5	65
Age								
less than 65	8.7	39	8.3	14	23.2	39	22.0	99
65~74	42.1	189	53.6	90	53	89	51.9	233
75 or more	49.2	64	38.1	64	23.8	40	26.1	117
Mean/S.D.	74.5	7.6	73.4	6.7	70.3	7.1	70.0	6.6
Education level								
None	53.9	242	28.6	48	25.6	43	10.9	49
Graduation of Elementary School	31.2	140	42.9	72	41.1	59	32.7	147
Graduation of Middle school or higher	14.9	67	28.6	48	33.3	56	56.3	253
Mean/S.D.	3.4	4.1	5.8	4.5	6.1	4.4	8.7	4.6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79.1	355	60.1	101	38.1	64	40.8	183
paid worker	8.5	38	11.3	19	28.0	47	20.0	90
self-employed	12.5	56	28.6	48	33.9	57	39.2	176
Number of Children								
1 or none	21.4	96	8.9	15	8.9	15	40.0	18
2~3	27.8	125	32.1	54	42.9	72	52.6	236
4 and more	50.8	228	58.9	99	48.2	81	43.4	195
Mean/S.D.	3.4	2.1	3.8	1.8	3.6	1.7	3.5	1.5
<i>Household's characteristics</i>								
Region								
Province	59.0	265	58.9	99	66.1	111	61.5	276
Seoul, Metropolitan city	41.0	184	41.1	69	33.9	57	38.5	173
Family Type								
Single	75.1	337	39.9	67	33.9	57	11.4	51
Couple	24.9	112	60.1	101	66.1	111	88.6	398
<i>Economic characteristics</i>								
Income (10,000won)	Median	480.0		579.4		1168.6		1773.5
	Mean	478.8		549.0		1496.0		2385.8
Assets (10,000won)	(S.D.)	(173.1)		(188.9)		(1066.8)		(4037.6)
	Median	1000.0		12877.5		3270.0		19000.0
	Mean	1760.3		18435.8		3186.8		27790.1
	(S.D.)	(2013.8)		(19005.7)		(30488.1)		(30488.1)

을 이용하여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소득·자산 집단별 부채보유여부에 따른 가계의 재무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재무비율지표를 활용하였는데, Choe 외(2003)가 제시한 재무지표 중 비상자금지표의 재무비율인 금융자산/월생활비, 유동성지표인 금융자산/자산, 부채부담지표인 부채/가처분 소득, 부채/자산, 부채/금융자산의 소득·자산 집단과 부채 보유여부에 따른 차이를 GLM-test로 검증하였다. Choe 외

(2003)가 제시한 안정성 지표 모두가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 전체 가계 중 소득이 0인 가계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가계수지지표와 비상자금지표 중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비율은 제외하였다. 또한 분석대상이 중고령자가계이므로 보험료 납입가구의 충분한 사례가 확보되지 않아 위험대비지표를 제외하였으며, KReIS 자료에 부채상환액은 측정하지 않고 있어 부채부담

지표 중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 가계소득 비율은 제외하였다. 부채보유가계의 경우 소득이 0인 가계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Choe 외(2003)의 부채부담지표에서 제시되지 않은 '부채/가치분소득'은 Statistics Korea(2010)의 가계금융조사 결과에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으로는 SPSS14.0을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가계특성에 따른 소득과 자산 수준별 부채 보유여부 및 부채규모

중고령자 빈등우리가계의 가계 특성에 따라 소득과 자산 수준집단별 부채보유여부를 살펴보았다. Table 3은 소득·자산 집단과 부채보유여부에 따라 가계특성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중고령자 빈등우리가계에서는 부채를 가진 집단보다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가 더 많았다. 참고로 Statistics Korea(2010)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가구주 50세 이상, 가구원수 2인 이하의 조건으로 통제했을 때의 부채보유가계의 비중은 42.7%이다. KReIS 분석대상 전체 가구의 부채보유가계의 비중은 30.7%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72.0세로 높기 때문에 가구주 연령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KReIS의 경우 조사시점이 2009년, 통계청의 경우 2010년으로 조사시점에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KReIS 원표본 가구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신규표본이 누락됨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다.

저소득·저자산 집단의 부채보유율은 16.5%, 저소득·고자산 집단의 부채보유율은 26.8%, 고소득·저자산 집단의 부채보유율은 33.3%, 고소득·고자산 집단의 부채보유율은 45.0%로 나타나, 자산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부채를 보유하는 가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기관에서 소득과 자산을 토대로 가계대출 적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담보가능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채보유 또한 다를 수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저소득·저자산 집단에서는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 거주지역, 가족유형별로 부채보유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남성가구주 가계가 여성가구주 가계에 비해 부채를 보유한 가계가 많았고, 가구주의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부채보유가계가 많았다. 가구주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 가계에서 이보다 낮은 학력을 가진 가구

주 가계보다 부채를 보유한 가계가 많았다. 자녀수별로는 출가한 자녀수가 2~3명인 가계에서 부채를 보유한 가계가 가장 많았으며, 거주 지역별로는 대도시 가계에서 중소도시 거주 가계보다 부채를 보유한 가계가 더 많았다. 가족유형별로는 부부가계에서 1인가계에 비해 부채를 보유한 가계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계자원이 가장 취약한 저소득·저자산 집단의 경우 부채를 보유한 가계는 다른 집단에 비해 적지만, 가계의 여러 특성별 부채보유여부의 통계적 차이를 보이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저소득·저자산 집단의 평균 연령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고, 빈곤가계가 포함됨에 따라 이들 빈곤가계의 생활고에 따른 생계형 가계대출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저소득·저자산 집단의 경우 부채를 보유한 빈곤가계의 가계특성이 부채보유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가계는 금융권 대출심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경우 제도권 금융 이외의 부채를 보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저소득·고자산 집단에서는 부채보유여부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가계특성이 없었으며, 고소득·저자산 집단에서는 가구주의 성별, 종사상지위에 따라 부채보유여부에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주가 남성인 가계에서 여성인 가계보다 부채를 보유한 가계가 많았다. 종사상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의 부채보유가계가 임금근로자나 비취업자 가구주 가계보다 많았다. 이는 고소득·저자산 집단의 남성가구주의 경우 여성보다 소득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자영업을 하기 위한 자산담보 대출의 결과로 자산수준은 낮고 사업을 통한 소득활동으로 가계소득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소득·고자산 집단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가장 낮은 65세 미만의 가구주 가계에서 부채보유가계가 가장 많았으며, 가구주의 종사상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 가구주 가계에서 부채를 보유한 가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계의 경우 평균 연령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집단 내에서도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65세 미만의 가구주 가계의 경우 풍족한 가계자원을 통해 금융권 대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집단은 높은 소득과 자산을 통해 부채상환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이므로 임금근로자와 비취업자의 부채보유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며, 노후생활자금에도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고자산 집단과 고소득·고자산 집단은 공통적으로 자영업자의 과반수 이상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바, 이들 자영업자의 경우 기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채 사업유지를 위한 신규 부채를

Table3. Whether household holds debts by income and assets groups according to household's characteristics (N = 1,234)

	Low Income · Low Assets						Low Income · High Assets						High Income · Low Assets						High Income · High Assets					
	Holding debts			Not holding debts			Holding debts			Not holding debts			Holding debts			Not holding debts			Holding debts			Not holding debts		
	%	n	%	%	n	%	%	n	%	%	n	%	%	n	%	%	n	%	%	n	%	%	n	
Total	16.5	74	83.5	375	26.8	45	73.2	123	33.3	56	66.7	112	45.0	202	55.0	247								
<i>Householder's characteristics</i>																								
Gender																								
male	22.9	33	77.1	111	6.378*	30.4	31	69.6	71	1.722	45	60.5	69	6.018*	167	56.5	217							2.409
female	13.4	41	86.6	264		21.2	14	78.8	52		20.4	11	79.6	43		35	46.2	30						
Age																								
less than 65	25.6	10	74.4	29		28.6	4	71.4	10		35.9	14	64.1	25		51	48.5	48						
65~74	24.9	47	75.1	142	24.436***	30.0	27	70.0	63	1.284	36.0	32	64.0	57	1.641	49.8	116	50.2	117	14.612**				
75 or more	7.7	17	92.3	204		21.9	14	78.1	50		25.0	10	75.0	30		29.9	35	70.1	82					
Education level																								
None	11.2	27	88.9	215		20.8	10	79.2	38		25.6	11	74.4	32		36.7	18	63.3	31					
Graduation of Elementary School	18.6	26	81.4	114	16.179***	23.6	17	76.4	55	4.047	33.3	23	66.7	46	2.056	46.9	69	53.1	78	1.597				
Graduation of Middle school or higher	31.3	21	68.7	46		37.5	18	62.5	30		39.3	22	60.7	34		45.5	115	54.5	138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16.1	57	83.9	298		26.7	27	73.3	74		20.3	13	79.7	51		36.1	66	63.9	117					
paid worker	7.9	3	92.1	35	5.034	31.6	6	68.4	13	0.301	29.8	14	70.2	33	13.044**	48.9	44	51.1	46	10.214**				
self-employed	25.0	14	75.0	42		25.0	12	75.0	36		50.9	29	49.1	28		52.3	92	47.7	84					
Number of children																								
1 or none	19.8	19	80.2	77		20.0	3	80.0	12		26.7	4	73.3	11		50.0	9	50.0	9					
2~3	21.6	27	78.4	98	6.066*	33.3	18	66.7	36	1.859	36.1	26	63.9	46	0.606	49.2	116	50.8	120	4.221				
more than 4	12.3	28	87.7	200		24.2	24	75.8	75		32.1	26	67.9	55		39.5	77	60.5	118					
<i>Household's characteristics</i>																								
Region																								
Province	13.2	35	86.8	230		21.2	21	78.7	78	3.818	37.8	42	62.2	69	2.987	42.0	116	58.0	160	2.536				
Seoul, Metropolitan city	21.2	39	78.8	145	5.034*	34.8	24	65.2	45		24.6	14	75.4	43		49.7	86	50.3	87					
Family Type																								
Single	13.4	45	86.6	292	9.603***	22.4	15	77.6	52	1.099	24.6	14	75.4	43	2.987	42.1	22	56.9	29	0.080				
Couple	25.9	29	74.1	83		29.7	30	70.3	71		37.8	42	62.2	69		45.2	180	54.8	218					

* p < .05. ** p < .01. *** p < .001.

Table 4.
Debits size in holding debts households' by income and assets group (unit: 10,000won)

	Low Income · Low Assets			Low income · High Assets			High Income · Low Assets			High Income · High Assets		
	Median	Mean (S.D.)	D	Median	Mean (S.D.)	D	Median	Mean (S.D.)	D	Median	Mean (S.D.)	D
Total	950.0	1627.6 (2397.4)		2000.0	3873.3 (4163.9)		1000.0	1850.9 (2483.4)		2600.0	3953.7 (4416.8)	
			#/F			#/F			#/F			#/F
<i>Householder's characteristics</i>												
Gender												
male	600.0	1840.4 (2971.4)		2500.0	3808.1 (3724.1)		1000.0	1673.1 (1794.2)		3000.0	4108.5 (4512.1)	
female	1000.0	1456.3 (1832.6)	0.195	1800.0	4017.9 (5161.8)		1000.0	2578.2 (4380.4)	-1.085	2000.0	3215.2 (3905.1)	1.088
Age												
less than 65	950.0	1614.0 (1538.5)		875.0	862.5 (549.8)		950.0	2474.3 (3793.1)		2000.0	4278.6 (5034.0)	
65~74	1000.0	1849.4 (2820.0)	0.738	2650.0	4950.0 (4864.1)		1000.0	1634.7 (1853.2)	2.748	3000.0	3954.4 (4212.3)	0.338
75 or more	600.0	1022.4 (1222.6)		2250.0	2657.1 (2122.3)		525.0	1670.0 (2066.0)		2000.0	3478.3 (4201.8)	
Education level												
None	761.5	971.9 (878.8)	^a	1800.0	2330.0 (1964.2)		300.0	623.6 (0831.0)	^a	850.0	2620.4 (4701.9)	
Graduation of Elementary School	800.0	1481.6 (2534.9)	^{ab}	2000.0	3123.5 (3239.9)		1000.0	1363.0 (1320.1)	^{ab}	2000.0	3328.4 (3893.6)	2.556
Graduation of Middle school or higher	1500.0	2651.4 (3199.0)	^b	3200.0	5438.9 (5328.6)		1550.0	2974.6 (3409.5)	^b	3000.0	4537.7 (4603.8)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1000.0	1786.9 (2679.0)	0.831	2650.0	4724.1 (4808.9)		640.0	1426.2 (1557.9)		3000.0	4646.1 (5052.7)	
paid worker	1938.6	2046.2 (904.8)		1275.0	2058.3 (2164.8)		1550.0	2282.9 (2202.3)	1.519	3000.0	4369.5 (4712.3)	2.171
self-employed	730.8	889.4 (702.2)		1950.0	2866.7 (2807.6)		900.0	1832.8 (2940.1)		2000.0	3258.3 (3666.1)	
Number of children												
1 or none	300.0	807.5 (1079.7)	^a	5000.0	8016.7 (8868.5)		650.0	590.0 (0408.7)		3000.0	4844.4 (3319.3)	
2~3	1000.0	2521.1 (3552.2)	^b	2200.0	3630.6 (3935.8)	3.427*	1750.0	2688.1 (3087.0)	1.640	3000.0	4164.2 (4418.6)	0.663
more than 4	1000.0	1322.5 (1115.0)		2000.0	3537.5 (3532.2)		425.0	1207.7 (1613.9)		1500.0	3532.6 (4533.2)	
<i>Household's characteristics</i>												
Region												
Province	900.0	1781.7 (2862.3)		2000.0	3588.1 (3965.2)		900.0	1860.7 (2753.0)		1950.0	3550.1 (4375.1)	
Seoul, Metropolitan city	1000.0	1489.3 (1915.6)	0.521	2825.0	4122.9 (4399.7)		1250.0	1821.4 (1478.8)	-0.426	3000.0	4498.2 (4439.8)	-1.513
Family Type												
Single	1000.0	1538.7 (2154.8)		2000.0	4083.3 (4980.5)		850.0	1279.3 (1391.3)	0.237	2500.0	3406.8 (4503.7)	
Couple	600.0	1765.5 (2766.9)	-0.375	2450.0	3768.3 (3781.0)		1000.0	2041.4 (2740.5)	-0.994	2600.0	4020.6 (4414.2)	-0.614

Note: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 < 0.5$

필요로 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 적정수준의 부채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소득·자산 집단별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부채규모가 가계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부채를 보유한 가계만을 대상으로 가계특성에 따른 부채규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부채규모는 자산수준이 높은 집단(고소득·고자산, 저소득·고자산) 부채 규모가 큰 반면 자산 수준이 낮은 집단(저소득·저자산, 고소득·저자산)의 부채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이 소득보다 부채규모에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소득·자산 집단 중 가계특성에 따라 부채규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집단은 저소득·저자산 집단과 고소득·저자산 집단으로 나타났다(Table 4).

저소득·저자산 집단에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부채규모가 차이를 보였다. 가구주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 가계의 부채규모는 1,500만원(평균 2,651만원)이며, 무학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 가계의 부채규모는 761만원(평균 971만원)으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계의 부채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별로는 자녀수가 2~3명인 가계의 부채규모가 1,000만원(평균 2,521만원)이었으며, 자녀수가 1명 이하인 가계의 경우 300만원(평균 807만원)의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수가 2~3명인 가계에서 부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은 이들 집단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주의 경우 소득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 비해 부채한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제도권 부채 이외의 사금융 부채 등 부채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자녀수가 2~3명인 가계의 부채규모가 큰 이유는 본 연구를 통해 직접적인 이유를 밝혀낼 수는 없으나, 부모가계의 부채의 일정 부분은 출가한 자녀세대에게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거나, 출가하기까지의 자녀양육에 부채가 동원되어 상환하지 못한 부채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부모가구의 부채와 출가한 자녀와의 사적 소득이전으로 연결되는지, 혹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채의 상황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지를 밝힘으로써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저자산 집단에서는 가구주 교육수준별로 부채규모가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 가계의 부채규모는 1,550만원(평균 2,974만원)이었으며, 가구주 무학 가계의 부채규모는 300만원(평균 623만원)으로 나타나, 저소득·저자산가구와 유사하게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계의 부채규모가 가구주 교육수준이 낮은 가계에 비해 더 컸다.

위의 저소득·저자산 집단과 고소득·저자산 집단 부채

보유가구에서 가구주의 학력에 따라 부채규모에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을 통해 자산수준이 낮은 가구의 가구주 학력과 부채규모의 관련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연구에서 양자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중고령자 빈둥우리가계의 소득과 수준에 따른 부채 보유여부별 가계재무상태

Table 5는 중고령자 빈둥우리가계의 소득과 자산 수준을 기준으로 부채보유여부에 따라 가계재무상태가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우선 비상자금지표는 금융자산을 월평균생활비로 나눈 것으로, 비상시 금융자산으로 몇 개월의 생활유지가 가능한지를 나타낸다. 각 소득·자산 집단에서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의 비상자금지표가 부채보유가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고자산 집단의 부채비보유가계의 경우 금융자산을 통해 14.9개월(평균 33.14)의 금융자산으로 생활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집단 중 가장 긴 기간 동안 비상시 생활유지가 가능했다. 다음으로 저소득·고자산 부채비보유가계(4.72개월)와 고소득·고자산 부채비보유가계(4.21개월)가 금융자산으로 약 4개월의 생활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집단들은 재무비율 수치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저소득·저자산 부채보유가계와 저소득·고자산 부채보유가계의 경우 가계에서는 보유한 금융자산 수준이 매우 낮아, 금융자산으로 생활유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중단 사태에 처할 경우 생활유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산수준이 낮은 부채가계의 경우 부채비보유가계에 비해 비상시 생활유지 기간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부채가계는 비상시를 위한 자산 확보와 특히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동성지표는 금융자산을 가계가 보유한 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가계가 보유한 자산 중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의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유동성지표는 고소득·저자산 부채비보유가계(0.06)와 저소득·저자산 부채비보유가계(0.0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저소득·저자산 부채보유가계의 경우 0.0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고자산 부채비보유가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금융자산이 총자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가계가 보유한 자산내 부동산자산 편중이 매우 심각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동일 집단 내에서도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에 비해 부채보유가계의 유동성 지표가 낮아, 부채보유가계의 금융자산이 매우 적어 유동성비율이 떨어진다. 이는 저축 등을 통해 부채보유가계의 금융자산 축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able 5.
Financial ratios by income and assets group according to debts holding

Financial Ratios	Total	Low Income · Low Assets		Low income · High Assets		High Income · Low Assets		High Income · High Assets		GLM -test	
		Holding debts	Not holding debts	Holding debts	Not holding debts	Holding debts	Not holding debts	Holding debts	Not holding debts		
<i>Emergency fund index</i>											
Financial assets	Median	1.36	0.00	0.06	0.00	4.72	0.52	1.34	4.21	14.91	34.380***
/Monthly expenditure for living	Mean	12.65	1.03	3.40	3.46	15.61	2.89	6.55	15.30	33.14	
	(S.D.)	(28.16)	(2.80)	(8.70)	(8.49)	(23.85)	(6.21)	(16.50)	(29.01)	(45.58)	
	D		a	a	a	b	a	a	b	c	
<i>Liquidity index</i>											
Financial assets/Total asset	Median	0.03	0.00	0.02	0.00	0.02	0.04	0.06	0.02	0.12	14.221***
	Mean	0.17	0.16	0.258	0.019	0.08	0.13	0.25	0.07	0.18	
	(S.D.)	(9.28)	(0.34)	(0.395)	(0.049)	(0.11)	(0.24)	(0.35)	(0.11)	(0.19)	
	D		c	d	a			d			
<i>Debt burden index</i>											
Debts/Disposable income	Median	1.42	1.75		4.96		0.72		1.29		0.464
	Mean	2.96	3.68		5.38		1.48		2.56		
	(S.D.)	(18.08)	(7.54)		(51.33)		(1.71)		(3.35)		
Debts/Total assets	Median	0.18	0.65		0.19		0.38		0.10		4.844**
	Mean	3.43	14.82		0.25		5.43		0.18		
	(S.D.)	(27.59)	(58.06)		(0.23)		(34.26)		(0.20)		
	D		b		a				a		
Debts/Financial assets	Median	2.48	12.50		10.88		2.89		1.67		7.374***
	Mean	27.45	98.23		59.04		21.05		8.84		
	(S.D.)	(107.28)	(241.43)		(146.92)		(52.43)		(20.45)		
	D		b				a		a		

Note. GLM-test = General Linear Model analysis results,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 liquidity index, low income · low assets holding debts group's median is 0.004, low income · high assets holding debts group's median is 0.000.

** $p < .01$. *** $p < .001$.

부채부담지표는 가계가 부채로 느끼게 되는 부채부담에 관한 지표로, 소득 · 자산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부채/가처분소득의 경우 전체 집단의 중앙값은 가처분 소득의 1.42배(평균 2.96)의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 고자산 집단의 경우 4.96으로 가장 높았다.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이 집단의 경우 낮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보유 자산의 처분을 통한 부채상환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채/자산을 자산 중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전체 집단의 중앙값은 0.18(평균 3.43)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 저자산 집단이 0.65(평균 14.82)로 가장 높은 반면, 저소득 · 고자산 집단은 0.19(평균 0.25), 고소득 · 고자산 집단은 0.10(평균 0.18)로 가장 낮았다. 특히 소득과 자산 수준이 모두 낮은 취약 집단인 저소득 · 저자산 집단의 경우 자산의 65%가 부채로, 부채부담이 가장 심각하고 자산을 처분한 부채상환이 불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낮은 소득으로 인해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부채/금융자산은 금융자산 중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금융자산이 없는 가계를 제외하고 산출한 결과, 전체 중앙값은 2.49(평균 27.45)로 부채보유가계는 전체적으로 금융자산의 2.49배에 해당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집단별로는 저소득 · 저자산 집단이 가장 높은 12.50(평균 98.23)으로 나타나, 고소득 · 저자산 집단 2.89(평균 21.05), 고소득 · 고자산 집단 1.67(평균 8.84)에 비해 높았다. 이는 취약집단인 저소득 · 저자산 집단의 경우 금융자산이 적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의 12.5배에 해당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집단에 비해 부채부담이 가장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부채부담지표(부채/가처분소득, 부채/자산, 부채/금융자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저소득 · 저자산 집단의 부채부담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이 집

단은 가용할 수 있는 가계자원으로 부채상황이 불가능한 집단으로, 소득원 창출이나 저축을 통한 금융자산 축적, 정부의 부채부담 경감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 빈둥우리 가계의 소득과 자산 수준을 기준으로 부채보유여부에 따라 가계재무상태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앞서 분석한 결과들 중 의미 있는 결과를 종합해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특성에 따른 소득·자산 집단별 부채보유 여부가 다르지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소득·자산 집단에서 부채를 보유한 가구비중이 비보유가구 비중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채보유가계의 경우 부채보유율은 고소득·고자산 집단의 부채보유율이 가장 높고, 고소득·저자산, 저소득·고자산, 저소득·저자산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한다면 소득 수준이 유사할 경우 자산수준에 따라 부채보유율이 결정되어, 소득보다는 자산이 부채보유율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득이 감소하는 중고령 시기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소득이 낮아지는 시기에 우선적으로 자산이 부채를 지기 위한 담보로 활용되며, 자산이 적을 경우 소득을 담보로 하여 부채를 보유하게 되는 LTV와 DTI 특성이 모두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계특성별로는 저소득·저자산집단의 경우 가구구성별,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 거주지역, 가족유형의 여러 변수들에 따라 부채보유여부에 차이를 보였으며, 남성가구주 가계, 가구주 연령이 낮은 가계,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 가계, 출가한 자녀수가 2~3명인 가계, 대도시가계, 부부가계일수록 부채보유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빈곤가계의 생계형 가계대출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이들 가계는 제도권 금융의 진입장벽으로 인해, 제도권 이외의 고금리의 부채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제도권 대출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가계에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서민형 가계대출이나 생활자금 보조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저자산 집단과 고소득·고자산 집단의 경우 모두 가구주의 종사상지위에 따라 부채보유여부에 차이를 보였으며, 이들 집단에서 특히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운영상 적자나 부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경우, 기존의 부채 이외에 신규부채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이 상환 가능한 수준의 부채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금융기관의 재무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

부채 관리를 위한 재무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계특성에 따라 소득·자산 집단별 부채규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채규모는 자산수준이 높은 고소득·고자산 집단과 저소득·고자산 집단의 부채규모가 크고 반대로 자산수준이 낮은 저소득·저자산 집단과 고소득·저자산 집단의 부채규모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자산수준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부채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채규모에는 자산이 소득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예측한다고 할 수 있어, 향후 실증연구에서 부채규모에 자산과 소득의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계특성별로는 자산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저자산집단과 고소득·저자산집단의 가구주의 학력이 중졸 이상인 가구의 부채가 무학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산수준이 낮은 가계의 경우 가구주 학력이 부채보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 추후 저자산 가계의 가구주 교육수준과 부채수요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저자산 집단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부채규모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지 못하였다. 이를 위해 향후 연구에서 부모가구의 부채와 출가한 자녀와의 사적 소득이전이나,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채 상황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자녀수와 부모가구의 부채규모와의 관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른 부채 보유여부별 가계재무상태를 재무비율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비상자금지표에서는 고소득·고자산 집단이 비상자금 지표의 재무비율이 가장 높아, 가계의 일시적 소득 중단 등의 비상사태의 적응력이 높았으며, 각 소득·자산 집단 내 부채비보유가계에 비해 부채보유가계의 비상자금 지표 재무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비상시 대처능력이 부채비보유가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 수준이 낮은 부채가계(저소득·저자산, 고소득·저자산)의 경우 부채비보유가계에 비해 비상시의 생활유지 기간이 짧아, 매달 소득의 일정액을 저축하는 방법 등을 통해 금융자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동성지표를 나타내는 재무비율에서는 고소득·저자산 부채비보유가계와 저소득·저자산 부채비보유가계의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각 집단 내 부채비보유가계에 비해 부채보유가계의 유동성 재무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고자산 부채비보유가계를 제외한 모든 가계의 금융자산이 총자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여 미국(64.9%), 영국(45.2%), 일본(58.7%) 등에 비하여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2010) 부동산자산 편중이 심각하다. 이에 자산 수준이 높은 경우 부동산자산의 임대 등을 통하여 금융자산을 점차 늘려 나가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부채부담지표를 나타내는 재무비율 중 부채/가처분소득의 경우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저소득·고자산 집단의 경우 가처분소득의 약 5배에 해당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가계는 단순히 부채와 가처분 소득만을 고려할 때, 가처분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Choe(2001)가 위험수준으로 제시한 25%를 넘어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자가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가계는 소득이 낮은 대신 보유자산 수준이 높으므로, 보유자산의 처분의 방법이나 자산소득 창출을 통한 부채상환을 고려할 수 있다.

부채/자산과 부채/금융자산 모두 저소득·저자산 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재무전문가들이 부채부담 위험수위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은 20%인데(Park & Rhee, 2002), 저소득·저자산 집단의 경우 자산의 65%가 부채였으며, 금융자산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저소득·저자산 집단은 부채부담이 위험수위를 초과함과 동시에 부채상환이 불가능한 취약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가계에 빈곤계층이 다수 포함되어 생계형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계의 부채부담이 노후시기에 걸쳐 지속될 것이며, 노후시기 동안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또한 이들 가계는 고연령으로 인해 생애 기간 내 부채상환이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저소득·저자산 가계의 취약집단은 가계차원에서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부채경감방안 내지는 부채상환대책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다. 이들에게는 부채상환을 위한 소득 창출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고령자들이 일자리를 통해 근로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예컨대 현재 노인 인력개발원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부문 노인일자리사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중고령자들이 대다수이므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홍보를 통한 참여유도와 지속적인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부채부담이 높은 취약계층에게 배우자 사망이나 전세금, 월세금 등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가계내 자원 부족으로 새로운 부채를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취약계층에게는 금융권 가계대출의 진입장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부채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영세민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용하거나,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연금수급액을 담보로 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노

후긴급자금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 빈둥우리가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가구내 자녀 등의 가구원이 있는 중고령자 가계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와, 분석대상 가계 중 부채보유가계가 적어 모형분석을 위한 충분한 사례수가 확보되지 않아 다양한 모형분석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밝힌다.

Reference

- Andolfatto, D., & Gervais, M. (2008). Endogenous debt constraints in a life-cycle model with an application to social security. *Journal of Economics Dynamics & Control*, 3, 3745-3759.
- Baek, E., & Hong, G. (2004). Effects of family life-cycle stage on consumer debt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5(3), 359-385.
- Bridges, S., & Disney, R. (2004). User of credit arrears on debt among low-income families in the United Kingdom. *Fiscal Studies*, 25(1), 1-25.
- Brown, S., & Talyer, K. (2008). Household debt and financial assets: Evidence from Germany, Great Britain and the USA. *Journal of Royal Statistical Society*, 171(3), 615-643.
- Byun, H-W., & Yoo, J-A. (2011). The financial Soundness using Korean household finance survey. *Korean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Weekly Issue*(2011.3.7), 1-10.
- Canner, G. B., & Lockett, C. A. (1991). Payment of household debts. *Federal Research Bulletin*, 77, 218-219.
- Chae, E-S., & Sung, Y-A. (2000).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objective debt burden variables on the subjective debt burden for setting the guidelines for household debt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11), 1-12.
- Choe, H-J., Lee, H-S., Yang, S-J., & Sung, Y-A. (2003). Development of the indexes and guidelines for evaluating financial status of the household using financial ratio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4(1), 99-120.

- Choe, H-J. (2001). Investigation of the critical level of household debt burden using intertemporal resource allocation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5), 279-291.
- Choe, H-J. (1996). A Study of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demand for credit and the effects of credit on consumption expenditur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4(4), 59-73.
- Choi, P-S., & Min, I-S. (2008). A study of households characteristics by classes in Korea. *A study of Social Science of Kyung-Hee University social science institute*, 34(1), 135-165.
- DeVaney, S. A. (1994). Change in household financial ratio between 1983 and 1986: Were American households improving their financial statu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31-46.
- Economics Statistics System. (2011). Credit to households. <http://ecos.bok.or.kr>.
- Garman, E. T., & Fogue, R. E. (1994). *Personal Finance*. (4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Hira, T. K. (1990). Changes in factors influencing consumer debt among Scottish families, 1984-1897. *Journal of Consumer Studies & Home Economics*, 14, 165-175.
- Jung, W-Y., & Han, K-M. (2004). A family life cycle and emergency fund adequacy of household.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5(1), 23-37.
- Kim, H-J. (2004). An analysis of household debt burden by household's occupation. *Journal of Social Welfare Policy*, 20(1), 109-131.
- Kim, H-J. (2005). Analysis of household debt burden by income classes. *Journal of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1(1), 119-147.
- Kim, H-J. (2010). An analysis of Korean households' characteristics and sensitivity analysis. *The Economic Forum of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3(3), 77-94.
- Kim, M-J., & Choe, H-J. (2007). Examination of the validity of household financial status evaluation index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8(3), 87-110.
- Kim, M-J., & Lee, H-S. (2009). Household economics structure and subjective evaluation on economic status of household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1), 25-43.
- Kim, W-Y. & Kim, H-J. (2010). The determinants of the household indebtedness in Korea. *A study of International Economy*, 16(1), 39-78.
-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2010). Comparison of household financial assets countries, 2010. 9.
- Lee, B-Y. (2006). Household credit growth and debt repayment capacity status and countermeasures. *Weekly Financial Brief of Korean Institute of Finance*, 15(49), 8-9.
- Lee, S-L. (2005). An analysis on the household economic structure on the indebted overspending households-evaluation of seriousness of economic problem of indebted overspending Household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6(1), 73-95.
- Lee, S-L., & Sung, Y-A. (2007). The expenditure pattern of the indebted overspending household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10), 45-57.
- Marlowe, J., & Godwin, D. (1998). The relationship of income and human capital to debt · asset ratio of farm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1), 95-109.
- May, O., Tudela, M., & Young G. (2004). British household indebtedness and financial stress: A household-level picture. *Bank of England Quarterly Bulletin*, 44(4), 414-428.
- National Pension Service. (2009).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Seoul: National Pension Service.
- Park, K-J., & Rhee, K-C. (2002). Portfolios according to the household financial strategies : analysis of the possession of asset and debt.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3(1), 45-73.
- Rhee, E-Y., & Huh, E-J. (2005). Korean households' delinquent behavior and the determinants of debt repayment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6(1), 179-194.
- Shim, Y. (1993). Household debt and its impact on consumption pattern. *Journal of Consumer Studies*, 4(2), 29-49.

- Statistics Korea. (2010). The results of Korean household and finance survey (2010. 12. 29).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24466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EA%B0%80%EA%B3%84%EA%B8%88%EC%9C%B5%EC%A1%B0%EC%82%AC.
- Sullivan, C., & Warden, D. D. (1996). 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associated with consumer debt use. *Purdue University Credit Research Center Working Paper*, 52.
- Sung, Y-A. (2006). An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the changes in household debts using panel data.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7(4), 39-60.
- Sung, Y-A. (2010). Determinants of household debt holding of different purpos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1(3), 29-52.
- Sung, Y-A., & Yang, S-J. (1995). A study on the debt burden and its determinants of urban household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3(1), 207-218.
- Sung, Y-A., & Yang, S-J. (2001). The economic status of elderly household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1), 173-190.
- Yilmazer, T., & DeVaney, S. A. (2005). Household debt over life cycle. *Financial Services Review*, 14, 285-304.
- Yoo, K-W. (2009, February). An analysis of Korean households' debts: based on micro data. The 10th Conference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Seoul, Korea.

접 수 일 : 2012년 2월 6일
 심사시작일 : 2012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4월 3일